

델타 변이 수주내 전 세계 지배종 된다

미국 2주마다 2배 확산 속
 청년층 백신 접종에 초점
 영국 확진자 90% 변이 집계
 포르투갈 60%... 4차 유행 우려

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립기념일(7월 4일)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몇 주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델타 변이의 증가로 청년층의 백신 접종 동기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델타 변이가 출현한 이후 12~15세의 백신 접종이 늘어나기도 했다.

◇ 포르투갈서 4차 유행 우려=유럽도 이미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리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주요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분위기다. 영국에서는 이미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로 집계됐다.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도 7월 19일로 연기됐다.

영국에 이어 포르투갈이 델타 변이의 두번째 대규모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 리스본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의 6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르투갈 당국은 지난 주말 리스본과 다른 지역 간의 여행을 금지했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포르투갈 인구 1천만 가운데 46%가 1회차 접종을 받았다. 29%가 2회차 접종까지 마쳤다. 포르투갈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 상황에 따라 제4차 유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중도 우파 성향의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은 지난 21일 다시 록다운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회당 소속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는 "아무도 록다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최근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6%에 불과해 사정이 상대적으로 관망지만, 보건 당국은 늦어도 가을에는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엥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델타 변이가 독일과 유럽대륙에서 지배종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에서 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오는 24~25일 정상회의에서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검출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지배종이 된 데 이어 포르투갈에서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하와이까지 델타 변이가 상륙했다. 미국에서도 오래지 않아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 미, 2주마다 2배로 확산 속 청년층 백신 접종에 초점=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델타 변이의 확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의 감염자 비중이 20%까지 올라갔다면 2주마다 대략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는 미국에서 기존 우세종인 알파 변이(영국발)보다 전염성이 60% 더 강하다.

하와이에서도 이날 처음으로 델타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2명 중 1명은 여행 기록이 없는 지역감염자다.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변이의 활동 추이를 추적하는 게놈 연구업체 헬릭스의 부사장 윌리엄 리는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할 때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슨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 감염학자인 저스틴 레슬러 박사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코로나19의 부활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레슬러 박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 모든 것은 백신을 맞음으로 써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은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인 18~26세 청년층을 대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왼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아드리아나 리틀이란 이름의 12세 소녀가 백신을 맞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질 여사는 최근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촉구하는 호주 시위대. 호주 시드니에서 23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정부에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켈, 나치 소련침공 80주년 맞아 사죄 전화

“전쟁이 가져온 슬픔·고통 공감”

푸틴 대통령에 사죄의 뜻 전해

끔찍한 전쟁 범죄를 일으킨 데 대해 최근 “수치스럽다”는 표현을 써가며 피해국들에 사죄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나치의 소련 침공 80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재차 사죄의 뜻을 전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나치 정권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 가져온 해악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양국 모두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국 대국민 팟캐스트에서 “나치 독일의 구소련 침공이 곧 80년째를 맞는다”면서 “독일인에게 이날은 수치스

러운 날로, 생존자들에게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나치 독일은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침공했다. 소련은 이른바 ‘대(大)조국전쟁’으로 부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27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러시아는 이날을 러시아판 현충일인 ‘추모와 애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지 80년째가 되는 해이다.

나치 독일은 소련 침공 이후 서부 지역으로 빠르게 진격해 수도 모스크바에 거의 다다랐지만, 1943년 스탈린그라드(지금의 볼고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에 참패했고 이후 전장에서 궁지에 몰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옆 무명용사의 묘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6월 22일은 여전히 모든 세대의 가슴에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며 운명을 짓밟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 백만장자 105만명

전세계 5608만 4000명

지난해 미 달러화 환산 기준 100만달러(11억 3000만원)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한국인(성인 기준)은 105만명으로, 전세계 백만장자의 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스위스계 투자은행(IB) 크레디트 스위스가 2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전세계 성인 1인당 평균 순자산(부채를 뺀 재산) 규모는 7만9952달러로 1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국 중앙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순자산

(부채를 뺀 재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5608만 4000명으로 추정됐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2195만1000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중국(527만9000명), 일본(366만2000명), 독일(295만3000명), 영국(249만1000명), 프랑스(246만9000명), 호주(180만5000명), 캐나다(168만2000명), 이탈리아(148만명), 스페인(114만7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05만1000명으로 네덜란드(103만9000명) 스위스(103만5000명) 스페인과 함께 전세계 백만장자 중 약 2%를 차지하는 국가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순위를 별도로 매기지는 않았지만 주요국 순위 표에서 보면 11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밥 한끼 2천만원...아베, 트럼프 접대에 나흘간 4억원 썼다

골프비용 1400만원

일 정부 “공식적으로 대접”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접대 비용으로 4억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 5월 트럼프를 일본의 국빈으로 맞이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가 약 4022만엔(약 4억1300만원)이라는 답변서를 전날 각의에서 확정했다.

트럼프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아베는 재임 중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수시로 자랑했는데 지출 명세서에서 극진하게 대접한 정황이 엿보인다.

도쿄의 상업지구인 롯폰기 소재 화로구이 전문점에서 아베와 트럼프가 부부 동반으로 함께 했던 비공식 만찬에 206만엔(약 2100만원)이 든 것이 특히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는 다른 손님도 받지 않도록 음식점을 통째로 빌렸다. 트럼프는 쇠고기 닭고기 꼬치구이를 즐겼고 만찬은 예정 시간을 넘겨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와 트럼프가 둘 다 골프광으로 유명한 가운데 골프 비용으로 136만엔(약 1400만원)이 나갔다. 이 가운데 골프장 이용료는 99만엔이었다.

나머지 지출 항목을 보면 정상회담·기자회견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준비 비용 1240만엔, 숙박 732만엔, 차량 렌트비 576만엔, 국기 등 준비비 378만엔, 사진 촬영 등 246만엔, 통·번역 61만엔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경비에 대해 “의례를 다하고 공식적으로 대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공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서에 밝혔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H. 010-2928-0202

우이도리섬 내, 시세 9억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법인체 인수가능. 010-3605-5000